



<10>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미모의 흑인대학교수 아니타 힐이 그로부터 성적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영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규정했다. 본인이 출하거나 원하는 행위를 성적희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부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에는 성적희롱을 △간이나 성적인 공격 또는 미수△의존적으로 접촉하거나 기대거나 구석이나 모퉁이△성적인 표현의 편지나 전화△데이트 압력△등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성적인 성적행위에 대한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스피치 등의 것이다. 미연방만지는 행위△인정받은 포옹을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일△성적희롱의 취지나 행위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각을 날리는 등의 30개의 각종 남용자의 행동으로 구체화해 놓았다.

그러나 한층 사춘기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행위를 어떻게 지나치게 긴장시키는 것인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가 주장과 지지 않다.

현재의 흑인 연방대법관인 클레런스 토머스 판사는 의회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갑자기 아니타 힐(Anita Hill)이라는 흑인대학교수가 등장, 진화를 치른 적이 있다. 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이 대학교수의 주장이 그 무대가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 자리라는 점,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을 이단정교 때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두사람간의 관계를 다룬 아니타 힐의 장편(The Real Anita Hill)이 지금 제법히 저서로 지면, 불개를 켜놓은 듯이 팔리고 있다.

정작 희롱문제는 이제 성인인 법정의 문제를 떠나 어린 학생들간, 심지어 인종선정파와 학생들간의 문제로 비화되어 법적 소송이 잇따르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해군내에서 발생한 남교수인들간의 집단성적희롱문제는 미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퇴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청소년들간에도 유행처럼 번져 성적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사自殺과판

미셸 블록시(49)는 지난 5월 자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싱턴DC 근교의 에디슨이라는 일류고교 수학선생이었다. 퇴근 후에도 전화를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정도로 자상한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한 여학생에게서는 젓가슴이 왜 조그마하냐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됐고 이 한마디 말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여학생은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의 수학선생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이에 대한 대꾸로 나는 왜 가슴이 작으냐고 한 것. 이 말 한마디로 학교 정계

학교까지 번진 「性的희롱」 논란

스승과 제자 - 학생들끼리 소송 잇따라

위원회가 소집되어 블록시는 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역시 워싱턴DC 근교인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교원조합에서는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상대로 한 「어떻게 성적희롱 주장을 피할수 있는가」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블록시에게 학생을 겁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학생의 몸을 토닥지거나 불을 만질 경우도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 「능가급적 선생님이 학생들과 물리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강의의 요지다.

상황이 이쯤되자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 한명을 상대로 한 상담이나 지도를 뫼수있는대로 피하려 하고 학생들을 집에게까지 불러다주는 자살한 모습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 선생의 경우, 자기에게 불신을 두거나 받아 지도한 보람이 물론 축하를 해주고 싶은 심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을 꺼안았다. 이 선생은 조금후 자신의 행동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 교장선생님에게 달변과 자조지중을 밝히면서 문제

가 생길까봐 우려했다라는 것.

어린 학생들간의 성적희롱문제는 사제지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젓가슴이 작다고 놀려대는 남학생을 상대로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 2만달러의 보상을 받는 승소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미네소타의 7세된 소녀는 학교버스에서 남학생들로부터 육체를 들었다고 소송을 제기, 최연소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성적희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는 기성대생의 퇴폐관행이 끊임없이 노출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새롭게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타락한 사회斷面

최근 美대학 부인회(AAUW)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85% 남학생의 경우 76%가 성적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적희롱을 당한 여학생 중 3분의1은 학교에 가지 않는 마음이 생겼고 남학생의 12%가 그러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미국 남녀학생들중 상당수가 선생이나 친구로부터 성적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엉뚱한誤解사지 말라” 행동지침 마련

